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

‘전북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본격 활동 돌입
금융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숙원과제 대응에 ‘앞장’
김관영 도지사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 위해 노력할 것”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도를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22일 서울 여의도 컨스텐 호텔에서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을 위해 오후 1시 20여명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계, 정부 부처, 언론인,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금융·기업·학계 부문 주요 참여 인사로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겸 손준주 웰컴금융그룹 회장, 황성택 트러스자산운용 사장, 나재철 전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오종남 BNY M&Tn 이태지역 고문이자 전 IMF 상임이사, 임용택 전 전북은행장, 아싱그룹 김흥규 회장, 박재하 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이 활동하게 됐다.
정부 부처 출신으로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이 참여해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언론계에서도 이영성 한국일보 고문과 김중명 전 KBS 보도본부장, 이익원 아태일보 대표가 앞장서주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정은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인호영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장이 참여해 국회와 도의회의 힘을 모아주는데 중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민간위원 중 신상훈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전북 금융도시 추진상황 보고 및 위원회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전북도를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당면 현안과제인 금융중심지 지정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금융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위한 건의활동 참여와 함께 각 분야별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번 출범식 이후 수시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전북 금융도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위원회의 활동변경을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보류한 이후,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지역공약에 반영하면서 재검토된 지역발전 의제이다.
또한 정부가 연내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나간다는 목표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도는 앞으로 금융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금융도시 지정 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 공약의 조속한 실행을 이끌어 내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2일 서울 컨스텐 호텔에서 열린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을 비롯한 정치권, 금융기관, 언론인, 학계 등 참석자들이 전북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염원하며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북지역 경쟁률 2.27대 1

253명 후보자 등록... 익산망성농협·부안중앙농협·부안산림조합, 도내 최고 경쟁률 기록
농축협 94곳·산림조합 13·수협 4곳 등 총 111곳 조합장 선출... 예상 선거인 수 24만9382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인 22일, 전북에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253명이 접수를 마쳐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별로는 농·축협 219명, 산림조합 28명, 수협 6명이 등록했다.
익산망성농협과 부안중앙농협, 부안산림조합에서 각각 5명이 후보로 등록해 전북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전북지역의 경우 농·축협 94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총 111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는다.

예상 선거인(조합원) 수는 24만 9,382명이다.
후보자 기호는 정보검증시스템을 거쳐 정식 등록된 뒤 추첨으로 결정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3일부터 선거 전 날인 3월 7일까지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면 안된다.
선거운동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등 비방, 선거운동 목적 매수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도 금지된다.

한편 이번 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도내 시군 조합에서 공명선거 실현 결의가 이어졌으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고발과 수사의뢰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3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선정해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으로 금품기부행위 등 부정선거에 대한 자수권유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은 기한 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자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전북도는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해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단속 등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는 영농을 준비하는 3월까지 불법소각의 원인 물질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영농부산물 처리작업(파쇄작업)지원, 농업인 행동요령 교육, 불법소각금지 캠페인 등을 강화한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어진 해충 방제 목적의 영농부산물(뽕짚, 고추대 등)과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전적이거나 이론은 근중도 함께 죽여 실질적인 방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힌 만큼 주민인식 계도와 산발방지를 위한 소각금지 캠페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등을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 또는 노천에서 소각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불을 피운 경우(산림보호법)에는 과태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외관련, 그간 전북도는 농촌에 버려져 있는 영농폐기물 및 폐자재, 폐농약병을 연중 수거하고 영농폐기물 소각 단속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영농부산물 소각이 농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만큼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조원 규모’ 새만금 내부지역 연결도로 공사 7~8월 발주

새만금청, 3~4월 기본계획 수립... 지역업체 참여 우대기준 적용

1조 원대의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내부지역 연결도로 사업’이 올 3~4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7~8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 3권역(관광레저 지역, 잠바라에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하는 20.7km(6차로)의 도로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현재 재정당국과 총사업비

를 협의 중에있다.
또 초년도 사업비로 올해 36억원을 확보하고, 법정 절차인 전라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공사여건과 공사의 시급성, 상징물(랜드마크)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구분할 입찰방식(단기 등) 및 단계별 발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4월 중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식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2·3권역 다수

민간 개발사업에 활기가 넘치고 상·하수도 및 전기 등 공급시설 설치 공적으로도 활용되, 새만금개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에 1조 원에 달하는 재정 투입은 약 1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7만 명의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간접효과 등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 기업 참여가 40%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하는 ‘새만금사업 지역 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전북지역 건설 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순창군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사랑기부제로
전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기부한도 : 연간 최대 500만원)

| 기부방법 |

- 대면납부 : 농협은행 방문신청(전국 농축협 어디나 가능, 단위농협 포함)
 - 신분증 지참
 - 기탁서 작성
 - 기부(현금 또는 카드)
 - 답례품 선택 및 배송
- 인터넷 납부(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기부자 인증 (거주지·한도 확인)
 - 기부금 결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 답례품 배송 (배송지 선택, 배송내역 조회)

| 기부자 혜택 |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등 제공 ※순창고추장, 장내미생물검사키트, 별초대행서비스 이용권 등

| 기부금 사용처 |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

| 기부문의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 063)650-1592